

정부의 건강증진정책 방향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국장 오대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는 수동적이고, 사후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우쳐 있던 보건의료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인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 (Health Promotion)정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그 의지가 법률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역할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되었다.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9년에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되었고, 치료기술의 발달, 의료서비스 공급능력 확대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보건의료제도의 확충에 힘입어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1960년의 평균수명은 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 불과하였으나 '99년에는 남자 69.2세, 여자 76.3세로 크게 늘어났으며, 사망률도 천명당 61명에서 7.7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되어 2001년에 이미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섰으며(고령화사회) 2023년에는 14%(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추세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99년의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 1순위는 순환기계질환이고 2순위는 암인 점에서 보듯이, 급성전염성질환에 의한 사망비율은 감소하는 대

신 만성퇴행성질환에 의한 사망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들은 흡연, 스트레스, 공해, 운동부족, 잘못된 식생활 및 잦은 음주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된 원인이며,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어 국민 의료비의 증가 등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WHO의 보고(The World Health Report 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DALE)이 남자는 63.2세, 여자는 68.8세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최근의 건강문제는 주로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한 것이므로 과거의 사후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난날에는 개인의 흡연, 운동부족 등에 의한 질병이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었으나 최근에는 단순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 차원의 흡연예방,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는 국민의 건강수준 저하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료비의 증가 등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만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발표한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Health Plan, 2010)인 것이다.

이미 선진 각국은 80년대부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틀을 사전예방적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건강증진사업 비전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대책(Health Plan, 2010)은 지금까지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미래의 건강수준에 대한 비전이다.

이 대책은 2010년에 우리가 도달하여야 하는 국민건강수명 연장 등 목표와 정책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연·절주·운동·영양 등 건강생활실천과 정신보건·구강보건·모자보건 등 보건서비스제공, 암·만성퇴행성질환(당뇨병, 관절염, 뇌혈관, 치매 등) 등 질병관리로 나누어 각각의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영유아·아동·청·장년·노인 등 이른바 각 생애주기별로 건강증진·질병예방서비스를 제공하되, 각 부문별로 그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내 민간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계획은 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현실을 도외시한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적으며 그렇다고 장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또한 장기계획의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면도 있다.

이번의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10)은 우선, 전체 계획을 토대로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그해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국민건강증진계획(Health Plan, 2010)을 수정, 보완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계획의 틀 속에서 매년의 계획을 실천하여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